

‘국정원 사건’ 공방... 뜨겁게 맞붙은 여야

민주 “권영세 주중대사가 이번 사건 사실상 몸통”

새누리 “민주, 국정원 직원 매수공작 철저 수사”

여야는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특별법’을 구성해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고위층과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이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김금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를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 따른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정원장이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려고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다가 ‘오버’ 해서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치는 몇 건의 글을 (올린 것을) 갖고서 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매관매직을 제외하고 정보를 빼냈다면 이

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라며 “기밀 유출과 여직원 김금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매관매직 및 김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수사 종료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매관매직’이라는 새누리당의 역공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하라”며 “이 또한 허위 날조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일부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증거인멸을 했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 구속하지 못할 정도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 것”이라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 같은 양당의 입장 충돌은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면서 “검찰이 수사 본질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이번 사건의 사실상 ‘몸통’ 내지 ‘배후’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외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4 재보궐 선거 당선 동기인 새누리당 김우성(가운데), 이완구(오른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공천권도 당원에 돌려주겠다”

“분권화는 폐쇄화 아냐”...“개방적 정당” 언급 문재인 반박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문재인 의원의 당 개혁안 비판에 대해 17일 “정당혁신에 있어서 분권화와 개방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필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권화는 폐쇄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당과 당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당원에게 내려주겠다”면서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얘기되는 공천권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권력을 더 많이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만큼 오히려 더 강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표 경선 당시 분권화와 함께 개방화를 동시에 공약했고, 대표 취임 즉시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어제 당 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인터넷소통위원장 등이 관련된 회의를 했고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문 의원이 산행을 함께한 기자들에게 “(국민) 참여를 다 잘라버리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정당으로 커 나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중앙당 축소 등 지도부가 내놓은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당 혁신이 그게 다가 아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반 시민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돼서 국민정당으로 커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보선 ‘동기모임’ 주목

김우성·이완구·안철수 의원 회동 새정치 논의

지난 4·24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김우성, 이완구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만행격인 5선의 김 의원 제안으로 마련된 일종의 친선모임이었다. 의견상으로는 안부를 묻는 가벼운 오찬이었지만, 참석자 면면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만남 자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새누리당에서 작년 대선 실무를 총괄한 김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2009년 ‘세종시 정국’ 때 충남지사에서 자진사퇴한 이 의원은 충청권 맹주를 자처하며 ‘포스트 JP(김중

필)’을 꿈꾸고 있다.

김·이 의원은 상임위 일정 탓에 늦게 도착한 안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같이 등원한 의원끼리 친목하는 게 관례”(김우성)·“한국사회에서는 동기라는 게 의미가 있다(이완구)”며 친근감을 나타냈고, 안 의원은 “좋은 모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이 “다음 모임은 안 의원 스타일에 맞는 순댓국집에서 합시다”고 제안하자 안 의원은 “어떻게 적 보고(스타일)를 알아봅시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이 의원은 안 의원이 내세우는 ‘새정치’ 실현을 응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새누리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 의원 인터뷰

“지역 인재·예산 소외없게 발로 뛰고 현안 챙기겠다”

“지역 예산과 지역 인재들이 현 정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7일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영순(66·비례)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민들이 현 정부의 호남 인사 소외와 지역 예산 소외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인재들이 많이 입각을 못해 지역민들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인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도당위원장 임기 동안 지역 인재들이 중앙정부에서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출된 만큼 전남 뿐 아니라 광주, 전북 등 호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챙기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 영입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13.5%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내년에는 더 높은 득표율을 얻도록 중앙당 사무총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목포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전직 의원 연금 활용하자”

민주 지원방안 검토 논란

민주당이 자진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해 이를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혁신실행위의 이종걸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연금인 헌정회 원로회 의원지원금을 폐지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공약한 세비 삭감을 즉시 이행하면 여기서 나온 재원 중 일부를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법이 개정돼 헌정회 회원에 대한 연금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 민주당 출신으로 개인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헌정회원들을 세비 삭감액으로 임시일발 돕자는 것이다.

정치혁신실행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정치혁신실행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

정치혁신실행위 한 위원은 “세비 30% 삭감은 공약이나 지켜야 한다는 게 개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삭감은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내린 뒤 삭감해서 마련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한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까운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가족 중 애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환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영광광역시 서구 회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영광군향우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며입니다.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